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체험해요”

전북은행, 성남 한국잡월드서 'JB멘토링 문화체험' 실시... 직업체험·진로탐색 기회 제공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최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제35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직원 및 대학생봉사단과 아동 30여명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흥미로운 직업체험을 함께 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들어진 '어린이체험관'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면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최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잡월드에서 '제35회 JB멘토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은지 어린이는 "평소 요리사가 꿈이었는데, 직접 피자와 쿠키를 만들어보니 재미있었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매해 임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여,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는 'JB멘토링 문화체험', 소외계층 어르신에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 한가득 주먹밥'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인건비 부담 줄여드립니다”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산업·8대 선도사업 우대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2차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51.8%는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1개사당 평균 연구인력 수는 4.3명으로 대기업의 4.7%에 불과하다.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크게 채용, 파견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채용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고경력 채용지원으로 나뉜다.

파견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공공연구기관 재직 중인 연구원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의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지난 1차 공고(3월) 시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작년까지는 학사 연구인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사 연구인력을 신규로 지원(70명)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3점)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지원기업 모집 시에는 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산업 및 8대 선도사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인력 및 기업일 경우 우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역할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a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 이아연 주무관(063-210-648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미용봉사단 농촌마을 찾아 재능 나눔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본부장 최문욱)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주현)의 후원으로 31일 전북이마을봉사단과 함께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 팜스테이마을에서 어르신에 대상으로 미용 재능 봉사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봉사자 자원봉사자 전북이마을봉사단(단장 박보라) 소속 미용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50여명의 농촌 어르신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커트, 펌, 염색과 머리를 감겨드리는 등의 미용봉사로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농협에서 육성하고 있는 달오름 팜스테이마을(www.farmstay.co.kr)은 건강 강한 자연의 기(氣)가 숨 쉬는 마을로, 흥부전과 달오름을 테마로 한 농촌전통체험마을이다.

고사리, 아란 한과 등의 농·특산물이 유명하며, 그네·널뛰기·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과 달떡·아란 한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흥부갈 자연휴양림이 있어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마을민의 독특한 흥부잔치밥을 맛보고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시설에서 휴양지에도 안성맞춤인 농촌마을이다. /김윤상 기자

고품질 양파, 해외수출로 생산농가 시름해소

농식품부·aT,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통해 해외 수출물량 확대·국내시장 판로확대 '앞장'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지어 출하한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선별하여 상품화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국내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 양파 가격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를 통한 해외 수출물량 확대와 국내시장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의 산지생산과 유통의 핵심 기반 시설로써,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등 수확 후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지복합시설이다.

2017년 aT의 APC건립지원사업에 응모한 전북 남원농협의 경우, 지난해 품질 좋은 양파를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APC를 건립한 후 올해에만 1,800톤의 양파를 대만에 수출하였다. 지난해 140톤과 비교해보면 약 1,300%나 늘었다. /김윤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양파 가격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한 해외 수출물량 확대와 국내시장 판로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농식품부와 aT의 지원으로 최신 유통시설을 갖추게 되었다"며,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만에 이어 미국수출까지 이루어져 판로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월에 최신 시설의 APC를 준공한 아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인 국내 새벽배송의 붐을 일으킨 마켓컬리(Market Kurly)와 12톤의 양파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앞

로도 APC를 통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산지APC 건립과 운영컨설팅을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다양한 판로확대 등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APC를 고도화, 자동화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소양 인덕마을을 환경정화 활동 전개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홍중기)는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난 31일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30만원 상당의 폭염대비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지부 및 소양농협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팜스테이마을을 체험관 내외곽 청소와 마을주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홍중기 지부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팜스테이마을을 환경정화를 실시했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팜



스테이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휴가철 팜스테이마을 방문을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 관내에는 소양면 인덕마을과 고산면 창포마을에서 팜스테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선덕보육원, 무더위 돌봄 봉사활동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31일 선덕보육원 학생과 함께 임실치즈마을에서 '무더위 돌봄과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이승계 임실지부장 등 전북농협 임직원들과, 선덕보육원 어린이·청소년 등 40여명이 임실치즈마을 치즈와 꽃길 가꾸기 실시했다. /김윤상 기자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치즈·피자 만들기 체험, 영화관람, 실내수영장 물놀이 등을 하고 직접 만든 치즈와 돈까스를 먹으면서 무더위를 식혔다. 유재도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